십사만 사천 명에게 지구촌이란?

(계7:1~17)

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사만 사천 명에게 지구촌이란?>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십사만 사천 명에게 지구촌이란?'
그 유명한 십사만 사천 명에 관한 계시(환상)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장입니다.
십사만 사천 명에 대해서 여러분도 들은바 이야기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냐? 어떤 존재들이냐? 굉장히 궁금해요.
이 십사만 사천 명이 누구냐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의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12,000명씩이면 십사만 사천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환상과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계시 속에서 뜻하는 바는 언제나 선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사만 사천 명이, 9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한 십사만 사천 명입니다.

십사만 사천 명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를 말하는 것이고, 12라는 것은 하늘의 완전 숫자 3과, 땅의 완전 숫자 4를 곱한 숫자 아닙니까? 거기에 12를 더 곱한 것은 충만하고 온전하다는 이야기고, 12 곱하기 12 인 144에 1,000이 더 곱해지는데 이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십사만 사천 명과, 셀 수 없이 많은 흰 옷 입은 무리가 같은 대상을 향하는 표현으로, 십사만 사천은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딱 떨어지게 십사만 사천 명이라고 말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다 지켰습니다. 다만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도와 비슷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십사만 사천 명이 큰 셀 수 없는 무리인데 십사만 사천 명이라고 딱 떨어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셀 수 없는 무리이지만 그 큰 군중 속에 섞여있는 어느 한 사람도, 파묻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군중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도록 선택 받은 사람 중에서 상실된 사람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1:1로 상대하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지, 예정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우연히 들어왔거나, 예정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쩌다 한두 사람 낙오가 됐거나 이런 게 없다는 뜻에서 십사만사천이라고 딱 부러지게 숫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 광장에 한 300만 명만 모여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억이 될지 몇 십억이 될지 모르는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원받을 자가 한 50억이라고 치면 50억 중에 단 한 사람도 우연히 그 틈에 낀 사람도 없고, 50억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정 가운데 있던 사람이 낙오되어 밖으로 나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논란을 가하는 것은, 십사만 사천 명에 들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주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문제는 십사만 사천 명의 캐릭터가 어떤 존재들이냐는 겁니다.
그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읽지 않은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인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을 들고 온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 명입니다. 소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생각하신다. 주님의 보혈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이 한 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믿는다는 현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가가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하면 바람을 붙잡은 손을 놔버리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장 6:12-16절에서 본 이야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되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이 불 때에 설익은 무화가가 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왕족과 귀족과 부자와 자유인과 종과 모든 사람들이 산더러 이르되 바위더러 이르되 내 위에 쏟아져서 나를 죽이라고 하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내 위에 덮쳐서 나를 죽여 버려라."라고 하는 게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앞서서 죽은 자들도 모두 부활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이렇게 산과 바위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때에 얼마나 그것이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몹쓸 짓을 한 것인가가 다 드러나니까, 차라리 바위더러 나를 덮쳐 죽여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사는 사람들, 이미 사도요한이 계시록을 쓴 뒤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아직은 지구와 해와 별과 달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없어지지 않은 재림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천 년 뒤에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지구와 이 세상, 우주를 포함하는 땅이라는 물리적인 차원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삶을 종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무대, 이 땅이라는 무대와 해와 달과 별들을 아직도 없애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너무나 흔히 듣던 말인데 특별히 계시라고 할 것까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계시록에 십사만 사천 명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정하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지만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장소 아닙니까?
지구가 인간이 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지구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인격적으로 교류해야 할 대상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지구이니까,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지만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에요.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지만,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지구가 중심인데, 이 지구라는 무대가 새 지구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이 지구촌은 종들이 사는 새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새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믿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을 규정짓는다면 지구가 새로운 지구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지구가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어린양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는 이 지구는 어떤 지구였습니까?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대상들이 있던 지구였습니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아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 아들이 마음에 채워지시면서 아버지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아들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아버지가 채워지셔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아버지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아들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밖에 계신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데 그 밖에 계신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이 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들과 하나님아버지에게서 동시에 성령님이 나오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인데, 이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의 인간들은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나님아버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로 채워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대상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구였습니까? 사람 관계의 화평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했던 곳이 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곳입니까?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는 장소가 지구였습니다.
전부 나를 중심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더 이상 나를 채우거나 내 인생을 위하거나, 나의 화평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종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과, 인간의 화평을 근간으로 하는 평강과, 인생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장소로서의 지구가, 앞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그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사라질 세상이 마음 안에서 미리 사라진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마에 인을 받는 자들입니다.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는데 밖에는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지구가 됩니다.

어떤 지구가 됩니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어린 양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에 힘입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로 이룹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아버지와의 화평을 근간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온전히 타인에 대한 사랑을 합니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구분이 가시죠?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은 내 빈 마음을 채우려고 끌어당기는 사랑이고, 나쁜 것은 아닌데 대상을 잘못 정하는 것이 빗나가는 것(하마르티아)이고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바로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죽으심 덕분에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기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과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므로 하늘이 내가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뒤에 이 땅에서 아직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 의해서 아직 지구가 멸절되지 않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삶은, 완전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 주목을 하는데 그것도 내 동정심과 내 자비로 그 사람들의 필요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에 대한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지구위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든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다든지…

목사님들 경우에 아직도 몇 명 교회가 돼야 한다든지, 어떤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든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매출 얼마의 비즈니스가 돼야 한다든지…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살았던 이 지구가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고 이제 이 지구위에서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종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
이전에 내 욕망을 채워야 되는 지구가 없어져 버리고, 사명의 지구가 내 앞에 등장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뭔가 이 지구를 위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지구로서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인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침의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 내용이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온 9절 이하부터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9절에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나옵니다.
'구원하심'
구원하심이 뭡니까? 마음이 이 지구 안에 묶여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으로 삶의 평강을 누리려 하고, 인생의 성취를 얻지 못하면 낙오자라고 느끼는 두려움에 쌓여 있던 자들이 마음이 지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갖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욕망의 대상, 욕망의 무대로서 지구가 사라져 버리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지구가 앞에 놓여 있는 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인침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사도요한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큰 환난’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1세기 때의 박해를 생각하거나 또 그 비슷한 상황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진이나 기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다 연관돼 있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흰 옷이 다 연관돼 있어요. 옷이라는 게 신분을 말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분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아버지인 것은 자녀가 있기 때문이고, 남편인 것은 아내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목사인 것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남자인 것은 여자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아들인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이고, 사장인 것은 회사가 있기 때문이고 다 관계에서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뭡니까?
자, 내가 남편이면 상대가 아내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나 내 남편은 내 마음에 살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씻을 때, 어린 양의 죽음에 같이 동참해서 죽을 때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 관계만 끊어집니까?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아들과 딸, 회사, 동료, 친구, 동창…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인해서 환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환난은 지진이나 핍박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과하는 게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처음 태어난 아기가 아무도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있지 않을 때 엄마를 처음 보듯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면서(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눈을 딱 떠서 부활했을 때 처음 만난 분이 하나님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아버지 안에서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나의 신분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 아버지께 가서 그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이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도 적용되어서 자녀로 받아주셔서 그 신분을 받게 되고, 아직도 이 땅에 살아 있고 종의 신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그동안 욕망의 무대로서의 지구에서 내가 가졌던 모든 관계가 내 마음속에서 다 끊어지고, 이 지구 자체가 사라져버리니 이게 환난인 겁니다. 그렇게 환난을 겪고 나와서 모든 지구위의 대상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관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을 입게 되는데 이게 바로 흰 옷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됐을 때는 뜨겁게 사랑하면 붉은 옷,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핑크빛 옷, 직원들 관계에서는 시퍼런 옷…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옷을 입었기에 흰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관계가 존재하잖아요.
이제 내가 남편이 되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남편이 되라고 명하셔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써 남편이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인침 받은 자가 아닙니다. 어린 양 피를 통한 환난을 통과한 자가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할 때 이제까지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했는데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직장생활 했는데, 이제는 그 직장이 어린 양 피를 통과하면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써 그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만약에 그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나옵니다.
‘성전’
이 성전을 아시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몸을 일컫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전인데 단,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면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잠깐 방문하는(visiting) 게 아니라, 거하신다(dwelling)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16-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하

십니다.
이것은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울함도 슬픔도 절망도 괴로움도 없이, 언제나 하늘로 배부를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이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에 조금도 그들을 원망한다든지 믿음이 회의에 빠져 들어간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인격 속에서 천국의 삶을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조차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사만 사천 명이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 때 없어질 세상이 마음에서 미리 없어진 자들이고.
왜 미리 없어집니까? 어린 양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는 것, 즉 그의 죽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순간마다 고백함으로써, 이 지구위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자들이 십사만 사천 명이고, 이 땅에서 이 지구 위의 삶은 새로운 지구, 욕망의 지구가 아닌 사명의 지구, 오직 이웃사랑을 위한 지구로써 내 앞에 주어지면서 사명을 수행할 때에, 목자 되시는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울 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 바로 십사만 사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마에 인침 받는 십사만 사천 명의 하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욕망실현의 무대로써 지구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린 양의 죽으심에 온전히 연합함으로 새로운 지구, 사명의 지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